



Dr. Frank Aswani
CEO, Africa Venture Philanthropy Alliance (AVPA)

현장

#GSEF

Clifford Rosenthal
Author, Democratizing Finance: Origins of the CDFI Movement



GSEF 웨비나 시리즈 3번째 - 공동체 협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Daniel Sorrosal
Secretary, General Bureau of Federation of Ethical and Social Investment (Fedea)

GSEF 웨비나 시리즈 3번째, "코로나19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자 기회의 시대"

2020.07.25 16:46 by 이진백 기자

SPEAKERS



Patsian Low

Chief of Staff, 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AVPN)



Dr. Frank Aswani

CEO, Africa Venture Philanthropy Alliance (AVPA)



Daniel Sorrosal

Secretary-General, European Federation of Ethical and Alternative Banks (Febea)



Jongduk Jung

Engagement Manager,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SVS Fund)



Clifford Rosenthal

Author, Democratizing Finance: Origins of the CDFI Movement

▲ GSEF 웨비나 시리즈 3번째 세션 참여 강연자들. ©웨비나 화면 캡처.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이하 사무국)에서는 오는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제5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lobal Social Economy Forum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해 개최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2021년에 개최될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2021 포럼의 준비 일환으로 멕시코 GSEF2021 조직위원회와 함께 올 한해 사회적경제와 만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온라인 세미나(webinar, web+seminar)를 언어권별(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맞아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과 지방정부들이 지금의 위기에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과 노력을 중심 내용으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8회를 진행했으며, 21일 '공동체의 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을 주제로 9회차 웨비나를 개최했다.

영어와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번 3번째 세션에는 로렌스 곱 GSEF 사무국장을 좌장으로, ▲팻치안 로우 아시아자선벤처네트워크 (AVPN, 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총책임자 ▲정종덕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매니저 ▲Dr. 프랭크 아스와니 아프리카자선벤처 네트워크(AVPA, Africa Venture Philanthropy Alliance) CEO ▲클리포드 로젠탈 '금융민주화 Democratizing Finance' 저자 / Inclusiv 전 CEO (미국 전국 지역사회발전 신용조합 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다니엘 소로살 유럽 윤리적대안은행 연합회(Febea, European Federation of Ethical and Alternative Banks)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날의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기여, 특히 사회적 금융 단체들이 회원 또는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대책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연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협력과 협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회복과 재기에 혁신 금융이 더 많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로렌스 곱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할을 다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 의한 금융지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위기 이후에 다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5명의 연사들의 말을 들어보겠다"며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팻치안 로우

첫 번째 강연에 나선 팻치안 로우 AVPN 총책임자는 AVPN 회원사들이 코로나19 예방과 위기대응을 위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활동을 소개했다. 회원 멤버십을 기반으로 2011년 설립된 AVPN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15개국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2개국 600여 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AVPN 회원사들은 협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펀딩과 역량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금은 약 100억 원 정도이다.

팻치안 로우 AVPN 총책임자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의 투명성과 정보교류,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며 "팬데믹은 범지구적 현상이므로 협력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 정종덕 매니저가 준비했다. 연대기금은 대한미구 치치이 사히저그유 두매기그르 지소가느하 사히저그유 새태계 받저가 사히저겨제이 화서하

직의 성장과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매니저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을 소개한 후 '다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적 가치 구현 활동' 등 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파트너들과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유했다.



▲정종덕 매니저

정 매니저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위기의 상황에서) 지원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제공자로 봐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강연은 Dr. 프랭크 아스와니, 아프리카자선벤처네트워크 (AVPA, Africa Venture Philanthropy Alliance) CEO가 진행했다.



▲Dr. 프랭크 아스와니

프랭크 아스와니 CEO는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연대'와 '협력' 사례 2가지(Safe hands Kenya, 남아공 Solidarity Fund)를 공유했다. 그는 "현재 아프리카는 '의료 위기' 보다는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에 대한 과부하 보다는 실업률과 영세기업의 폐업으로 식량위기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기금 단체의 예산을 이미 다 소진한 상태이고 안타까운 상황은 코로나와 관련되지 못한 부분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생산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랭크 아스와니 CEO는 "이제는 우리가 향후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할 때인데 (코로나19 이후)회복, 재기에 혁신금융이 더 많이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혁신금융에 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하고, 혁신금융을 키우기 위해서는 MOU체결, 대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강연은 클리포드 로젠탈 '금융민주화 Democratizing Finance' 저자 / Inklusiv 전 CEO가 진행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코로나19는 복합적 위기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전하며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사례를 소개했다.

클리포드 로젠탈 전 CEO는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사례에서 정부 주도 기금의 조성과정, 성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

그는 현재 미국 금융 투자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하며 "지역개발금융기관(CDFI)들이 어느 때 보다는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CDFI의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며 "연대"라는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니엘 소로살

마지막 스피커로 나선 다니엘 소로살 사무총장은 현재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는 완전히 동결된 상태로 이에 대해 초 정부적인 노력(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직면해서 조직들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부문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연대정신으로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 클리포드 로젠탈

이후 웨비나 시리즈 4번째 영어권 온라인 세미나는 9월 29일에 진행된다.

관련기사

- └ Gsef 온라인 웨비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코로나19 위기 ...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중요
- └ Gsef 웨비나, "코로나 이후, 사경의 힘 '연대'로 모든 이에 좋은 세상이 되도록"
- └ Gsef, 21일 세 번째 웨비나 개최
- └ GSEF 웨비나, 29일 마무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변화 논의한다
- └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과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사회연대경제
- └ GSEF,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개최
- └ 사회연대경제(SSE) 가치사슬(Value Chain) 대안 될 수 있나?
- └ 받은 도움이 주는 도움으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은 어디서 오나?
- └ 재난의 시기, 사회적금융의 역할을 논하다
- └ 사회적경제가 기부자보다 소수자이며

저작권자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백 기자

✉ 메일보내기

☰ 기사보기

댓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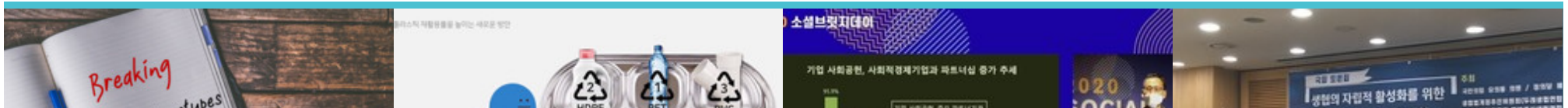
정렬 기준 날짜 오름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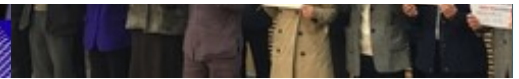


댓글 달기...

Facebook 댓글 플러그인

중요기사





[性役없는세상③] 차별과 불평등의 벽을 깨고

플라스틱을 '편식하는' 미생물로 재활용률을 높인다!

민간기업의 인프라-사회적기업의 선의, 다리 위에서 만나다

새로운 10년을 위한 '생협법'에 3개 정당 뜻 모아

인기기사



거주자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사회적경제주체란?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 (중결) : 두만강지역개발의 꿈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 (下) : 두만강지역개발의 꿈

[아름다운家] "어서와 '사회주택'은 처음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 의료사협이 나아갈 길

Follow up on SNS

라이프인 기자들이 최신 기사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f blog TALK N

라이프인 뉴스레터 구독하기

LET'S GO!

그것이 궁금하다

〈라이프인〉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이프인〉의 후원독자가 되어주세요!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라이프인 | 법인명:라이프인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544-82-00132 | 대표자:이영희

대표메일:l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070-4705-7070 | 팩스:070-4705-7077

등록번호:서울아04445 | 등록일:20147-04-03 | 발행일:2017-04-24 | 발행인:이영희 | 편집인: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송소연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인 터 넷 신 문 위 원 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